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3월 6일(금)

..(음력 2월 12일)..

Пятница

6 марта 2020г.

№ 9(11687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최 이리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음악학교 피아노전생이다. 그는 본교에서 음악교육을 받았으며 사할린예술콜레즈에 입학했다. 콜레즈를 졸업한 후 블라디보스토크 예술아카데미에서 고급음악교육을 받았다. 아카데미를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잠시 일하다가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모교인 중앙음악학교에서는 이미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동시에 예술콜레즈 강사를 하고 있다. 성장하는 교육자로 동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작년에는 시 교육관리국 감사장도 받았다. 최근에 최 이리나 교사는 올 3월 11-14일에 진행되는 사할린아동청소년음악대회에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취재: 이에식 기자)

친애하는 숙녀 여러분!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월8일이 특별한 날인
까닭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배려와 관심, 새로
운 생명을 탄생 시키며 모성
적 수고를 우리 모두가 사랑
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사일과 전문적인 사업과 예술
과 사회적 활동을 겸하여 성공적으로 일을 해
내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가족과 이웃, 동포와 사
할린주 전체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에 여성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좋은 일을 도모하는 데에 항상 지원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
와 사랑이 깃들길 기원하며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2023년 말까지 사할린에 가스 충전소 19개 개소 예정

11개의 가스충전소와 8개의 이동
충전장비를 사할린주에 건설할 계획
이다. 3월 2일 동방경제포럼 모임의
일환으로 시작된 <엔진 연료로서 천연
가스 사용으로의 전환, 도전과 가능
성>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소식
을 알렸다.

이 대회는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의 주도로 모스크바, 상트-페
테르부르크, 야쿠치야, 하바롭스크,
프리모리아, 사할린으로부터 300여
명의 참가자들을 모아 진행했다.

주지사는 "사할주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차량들의 연료를
가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연
료비는 적잖은 문제로서 우리에게도
가격은 상당히 높다.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 중 하나는 차량들을 가스엔진
연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미
80여 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사할
린주는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시
킬 만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사할린 지도부는 사할
린 차량들의 절반 정도를 가스엔진 연
료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특화
된 가스 충전소 연결망을 건설하지 않
고는 이 과제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
다.

올해 2/4분기에는 주 중심의 펠레
즈다로즈나야 거리와 푸르크에와 거
리에 제2 가스 종합충전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의 87%가 진행되
었다. 이외에도 올 연말까지는 지방자
치단체에도 6개의 이동식 가스충전소
를 가동시킬 예정이다. 사할린에 가스
충전 제반시설 건설은 대규모 투자기
획에 속한다.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혜도 즉시 제
공되는데 충전소 건설지를 입찰 없이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 장비 비용의
70%를 지역 예산에서 보상하고 이동
식 가스충전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
가들에게는 가격의 90% 보상을 고려
하고 있으며 서비스 센터들에게는 장
비 작업을 위해 필요한 구입 비용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러시아 연방 산
업통상자원부 대표들, 가스프롬 석유
가스회사 대표, 글로벌 가스장비 공급
사, 대리점 직원, 운송회사 대표,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국 대표, 로스퉁
그레스재단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토론은 <가스엔진 연료 차량 재장
비의 기술적인 면과 가스 충전소 제반
시설 개발>과 <가스엔진 연료 차량
개발 촉진의 재정적 기구>에 대해 원
탁회의로 진행되었다.

단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 국회 외통위 의결

지난 3월 3일(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다음날,
3월 4일에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도 의결되었다. 이제 법사위로 넘어
가고,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 의결되어야 한다.

한편 이 법안에 따르면 1세 영주
귀국자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배
우까지 확대했다고 전해졌다. (이
미 영주 귀국한 1세와 앞으로 귀국
하게 될 1세에게 한함).

법안 의결문제로 사할린주한인협
회는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오는 9
일(월) 급히 소집하기로 했다.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소
개된 법안은 본지 3면에 게재. (외통
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법안과 약간
다를 수 있음.)

3월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TV다부작 영화 축제 개막

3월 8일부터 14일까지 2020년
<조국의 아침> 러시아 TV 다부작
영화제 개최로 경쟁 프로그램의 11
개 TV영화들을 대항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영화는 유즈노사할린
스크의 <육차브리>영화관과 <코스
몰레즈>영화관에서 상영하며 입장
은 무료다.

<조국의 아침> TV영화제 심사
위원들은 유명 감독들로 관람객들과
만남을 갖고 작품을 소개하고 설명
하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축제의
일환으로 러시아 인기 가수와 배우
들이 6개의 콘서트를 펼친다.

<조국의 아침>TV영화 축제 개막
식은 3월 8일 <크리스탈>스포츠회
관에서 18시에 열린다.

사할린주 교육부 무라쇼와 장관 사임

사할린주 교육부 나탈리아 무라쇼
와 장관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다.
무라쇼와 장관은 2014년부터 사할린
주 교육부 장관으로 활약하며 교육
분야에 40여 년간 일생을 바쳤다.

새 장관으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교육관리국 아나스타시야 키테와
국장이 임명되었다.

사할린주, <러시아 기능올림픽> 연맹과 협력

3월 2일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
코 주지사와 <러시아 기능올림픽(월드
스킬스)>연맹 로베르트 우라조브
대표이사가 인적 자원 관련 영역에서
2035년까지 사할린주의 사회경제
개발 전략 공동추진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전문 기술인 양성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이 방면에 협력하기
로 했다. 만남에서 우라조브 대표이
사는 사할린에서 전문적 기능 향상
을 위한 국제 수준의 대규모 행사 진
행의 가능성도 논의했다.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
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메이크업은 자신만이 가진 미를 돋보이게 하는 기술

'삶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는 최고의 화장법이다.' -로잘린드 러셀-
메이크업 아티스트 - 최 이리나

세계의 여성의 날을 맞아 요즘 여성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는 직업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았다. 사할린에서도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지인의 소개로 <최 메이크업 학교>업소를 찾았다. 이 메이크업 스텝은 최 이리나(1981년생)가 운영하고 있다.

이리나는 표정도 밝고 말투가 고운 미인이었다.

인터뷰 내내 거침없이 응하며 세세한 설명도 해주었다.

이리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으로 푸쉬킨 제1김나지아를 졸업, 사할린국립대 동양학부에 입학해 일본어를 전공했다.

대학을 마치고 2003년에 <사할린-1> 석유·가스프로젝트로 사할린에 들어온 <니폰 스틸>일본회사의 자매회사에 입사해 5년간 근무했다. 사할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일본회사가 떠나자 이리나는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본부를 둔 PSN 외국회사에서 문서관리부 부장으로 5년간 근무했다. 석유·가스 프로젝트 관련 중요 문서·설계도안, 기술카드 등 - 담당의 매니저 직위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PSN회사도 프로젝트가 끝나 사무실을 접었고 훌륭한 전문가로 인정받은 이리나는 바로 <사할린 에너지>회사에 취직했다. 이 회사에서 1년을 버텼다. 10년 이상 문서 관리 관련 사무를 보다 보니 한계치에 이르렀다. 고민이 되었고 깊이 생각한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이 결심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남편이었다고 이리나는 말한다. 남편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내가 조금 더 많이 집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고 한다.

이리나가 회사를 그만 둔 주요 이유는 지친 점도 있었지만 서류만 뒤적이는 사무보다는 창

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와 관련된 공부도 하고 싶었고. '무슨 공부를 할까?' 고민하는 동안 사마라에서 온 메이크업 아티스트(고급 전문가)의 교육과정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한다. 연수가 마음에 들어 마스터의 모든 3-4가지 연수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다. 마스터는 이 분야에 유망해 보이는 제자의 실력을 인정하고 "이제는 실습을 많이 해야 한다. 경험을 쌓기 위해 100명 정도에게 화장을 해줘야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에 이리나는 그냥 취미 삼아 배우는 건데 자신에게만 화장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도 선생의 말에 따라 해보려는 마음도 생겼다고 했다.

처음엔 친척과 친구들에게, 다음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메이크업 시연을 무료로 해주었다.

오목조목 예쁜 여성들의 얼굴의 특징을 살려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화장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화장을 마무리하면 아름답게 변신한 여성이 감동하는 모습과 반응,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울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변했다는 것에 감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리나에게는 새로운 직업에 들어선 것이 흡족했다고 했다.

이리나의 메이크업 기술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고객 수가 늘었다. 만족감을 안겨주던 창의적 취미는 어느 날 일로 바뀌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1주일



에 7일간 내내 일하게 되었다. 남편은 "차라리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게 낫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리나는 돈벌이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잠깐 일했다고 했다. 꼭 이리나의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고 부탁해 거절을 못했다고 한다.

경험도 좀 쌓이고 다른 사람들과 이 기술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전문적 연수과정을 열고 제자들도 생겼다. 첫 제자들은 요즘 자신의 스텝도 열고 다섯 명은 이리나가 2018년에 개강한 <최 메이크업 아티스트 학교> 스텝에 취직했다. 제자가 생겨서 이리나도 여유로워 좀 수월해졌다. 단골들 얼굴의 장단점과 특성을 알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으로 이제는 제자 마스터들에게 일을 맡긴다.

"메이크업 스텝을 가장 많이 찾아오는 날은 연말연시(새해맞이 때), 졸업식은 물론 결혼식, 기념일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별이 유 없이도 변신을 위해 메이크업을 받으러 온 여자들을 좋아해요. 때로는 여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는지 잘 모릅니다. 단골들도 많은데 새 얼굴들이 자꾸 오는 것이 신기해요. 우리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많은 고객이라니, 사람에 따라 피부의 톤, 피부의 결도 다 다르고, 특히 사할린에는 유럽 스타일의 러시아인, 동양의 우리 한인 동포가 살잖아요. 동포 같은 경우 보통은 피부가 좋고 입술이 통통해요. 그 장점과 특징들을 살려서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뷰티, 메이크업은 변화가 빠르고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추려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재빠르게 변화시키고,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이리나가 말했다.

이리나는 전문적 연수 외에는 평일 저녁 주일에 2번 일반인들을 위한 <나는 자신의 메이크업 마스터>라는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자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서비스를 받기 보다는 올바른 메이크업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더 좋다고 한다. 수업 전달이 잘 되어 이 마스터클래스는 인기가 항상 많다. 특히 교수방법론을 전공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법을 아는 이리나는 선생으로서의 자질도 충분하다.

이리나가 직업을 바꾸자 의사였던 시어머니, 약사였던 친 어머니도 처음엔 이리나를 이해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게 무슨 직업이야?'라고들 반문했는데 얼마 전에는 모두 바뀌었다. 정말 필요한 직업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바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 앞으로 더 인기가 많아질 직업이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한다.

'삶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는 최고의 화장법이다.' 라는 20세기 미국 배우 로잘린드 러셀의 말이 있다.

이리나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다. 백안드레이 예비신랑과 2년 연애하다가 2003년에 결혼했고 아이도 셋을 두었다. 전문적 자기 능력의 성장을 생각해 첫째 아들을 결혼생활 5년이 지나 낳았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 아들은 곧 3월 20일경에 돌을 맞이한다고 한다. 이번에 첫째는 11살, 막내는 1살이 된다며 뿌듯한 미소를 머금고 얘기했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애려도 풍성하다. 아이들에게 여러 보충교육도 시키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도 잊지 않는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겨울이 되면 이리나는 남편과 함께 얼음낚시를 즐긴다고도 한다. 이것만으로도 그녀의 얼굴은 충분히 아름답다.

최 이리나와 거의 두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활방식이나 마음이 참 밝은 분으로 느껴졌다. 인터뷰 며칠 뒤 이리나의 지인 두 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들 역시 그런 평가를 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늘 성장을 갈구하는 이리나에게 여성의 날을 맞아 축하와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맛과 품질>이라는 미식 박람회가 열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지역의 진미들이 선을 보였다. 사할린의 14개 업체와 프리모리의 1개 업체가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은 가운데 <맛과 품질>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치즈와 수제 소시지, 수제 만두, 꿀 수프레, 크림꿀, 수제 체과, 특색 있는 음료와 영양 많은 새싹들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천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아와 맛보며 독특한 식품들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로또 추첨에도 참가해 박람회 참가자들과 주최 측이 제공하는 상품도 받을 수 있었다.

본 행사는 사할린의 '기업가 지원센터'가 주최했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대규모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가 지원센터'는 무료로 창업, 재무 계획, 마케팅 지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 및 전문적 감정, 회사 설립 문서와 계약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 운영자와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미나, 콘퍼런스, 포럼, 원탁회의를 진행하

고 특별 교육 프로그램, 출장, 회의, 전시회, 박람회들을 개최하고 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л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ую ярмарку "Вкус и качество"

Местные деликатесы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выстав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етителям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й ярмарки "Вкус и качество" предложили сыры, домашние колбасы, пельмени ручной лепки, мёд-суфле и крем-мёд,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ручной работы, авторские напитки и живые питательные ростки.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товаров представили 14 сахалинских и одна приморская компании.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тили более тысячи гостей. Они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попробовать и приобрести уникальную продукцию, но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беспроигрышной лотерее и получить ценные призы,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или участники и организаторы ярмарк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действу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р поддержки развит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бесплатно консультирует по вопросам начала веде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финансов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и маркетингового сопровождения, а также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в составлении и экспертизе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учреди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действующих предпринима-

телей и тех, кто только собирается открыть своё дело, проводят семинары, конференции, форумы, круглые столы, организуют специальные обучающие программы, бизнес-миссии, конгрессы, выставки и ярмарк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한국의 홍상수 감독,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 수상

2월20일부터 3월1일까지 열린 제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베를린에서 막을 내렸다. 영화제의 최고 상인 황금곰상은 이란의 모하마드 라슬로브 감독의 영화 '악은 없다'가 수상하여 올해의 최고 영화로 선정되었다. 한편, 한국의 홍상수 감독은 영화 '도망친 여자'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홍상수 감독은 그간 대형 국제영화제에 4번 출전하여 그중 3대 베니스, 베를린, 칸느 국제영화제 중 한 곳에서 받은 4번째 상이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세계의 끝> 사할린 국제영화제에서 몇 번 상영되었다.

На Берли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ежиссёр Хон Сан Су получил «Серебряного медведя»

В Берлине завершился юбилейный 70-й Бер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20 февраля по 1 марта.

(8면에 계속)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3·8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올가(50대 후반): 모르는 남자에게서 생화 꽃 다발 받고 싶습니다.

인가(10대 초반): 선물 하는 자체를 좋아합니다. 무엇이든 좋지만 필요한 것은 새 스마트폰입니다.

알렉산드라(60대 초반): 선물로 한국 에토미 화장품세트와 러시아 아제니스 회사의 영양제와 티타늄 팔찌를 받고 싶습니다.

올리아(40대):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냥 쉬고 싶어요.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선물!

엘레나(40대 후반): 나이 들어가면서 물질적이지 않은 선물을 더 받고 싶습니다. 좋은 날씨, 좋은 기분, 좋은 말씀. 또는 재미있는 연극이나 영화에 초대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대답은 많이 받을수 있지만 제 답이 100% 진심이 확신해요.

알리사(30대 초반): 꽃을 좋아하거든요. 꽃을 받고 싶어요.

엘레나(20대 중반): 잘 모르겠어요. 꽃이 아닐까 싶어요. 꽃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3·8절에 어떤 선물을 하시겠어요?

유리(30대 후반): 며칠 안 남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몰라요. 고민 중입니다.

알레리(60대): 아내와 딸을 레스토랑에 초대하려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명절을 보내려고요. 꽃다발 선물하는 게 왠지 좋아할 것 같아요.

드미트리(30대): 아이들은 엄마에게 직접 손수로 한 공예품을 선사하고 저는 아내에게 스파 살롱 입장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르게이(70대 초반): 아내에게는 꽃, 딸들에게는 아내가 고른 선물, 손녀에게는 물감과 앨범종이.

블라지미르(70대 초반): 물론 아름다운 꽃다발을 사주고 돈을 많이 벌여 주는것도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 좋은 날을 만들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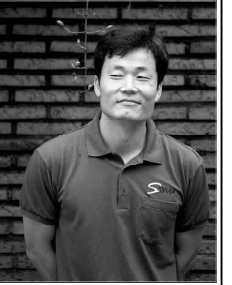
알렉세이(30년대 후반): 여행권을 선사하고 싶어요. 사실 아시아 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러시아 여행 보내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배순신 기자 적음)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바다에 나가면 사람이 보인다

몇 해 전, 범선을 타고 나가사키에 다녀왔다. 일 년에 한 번 나가사키 시에서는 국제범선축제를 여는데 한국의 코리아나, 러시아의 팔라다 또는 나제즈다, 일본의 니폰마루등 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범선을 만날 수 있다. 축제에 참가하려고 돛을 펴 대한해협을 항해하는 범선의 선원은 이런저런 할 일이 많다.



가장 긴장되고 재미있는 건 역시 배를 조종할 때였다. 나침반과 네비게이션이 방향을 알려주지만 물결과 바람이 끊임없이 부딪치기 때문에 수십 미터나 되는 배의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긴장을 해야 했다.

밤에는 당직 두 사람이 배를 책임졌다. 오월에 겨울옷을 입고 찬바람을 맞으며 캄캄한 밤바다 가운데서 배를 몰 때면 두 시간짜리 근무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나가사키에서 일정을 마치고 거제도의 지세포를 향해 출항했다. 일본 근해에서도 파도가 제법 있었는데 대한해협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니 배의 흔들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야간 근무의 가장 좋은 근무 시간은 초저녁과 새벽이다. 주간 마지막 근무에 온 좋게 야간 첫 근무를 맡은 나는 네 시간 동안 배를 몰고 열한 시쯤 다음 사람에게 조타를 넘겨주었다.

그날 밤 대한해협의 파도는 정말 고약했다. 뱃머리가 들렸다가 곧두박질치는 느낌이 꼭 롤러코스터 같았다. 잠 들었다 잠깐 놀라 깨기를 반복했지만 편안한 침대 밖으로 나오고 싶지는 않았다.

아침이 되자 파도가 어느 정도 잔잔해졌다. 밖으로 나온 나는 깜짝 놀랐다. 나와 교대했던 분이 그대로 배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근무자가 나오지 않아 그 분이 밤새 배를 지켰던 것이다.

다음 사람에게 화가 났지만 스스로도 부끄러웠다. 밖에 있는 사람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침대를 벗어나지 않았고, 뜨거운 차 한 잔 가져다주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부끄러움 뒤에 찾아온 건 사람에 대한 믿음이였다. 다시 바다를 건너게 된다면 그 분과 함께 배를 타고 싶다. 혼자 밤새 파도와 싸우고도 씩 웃으며 선실로 사라진 그 분이라면 목숨을 건 모험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배를 타보면 사람을 알게 된다.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광주에서 김남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안의 제안경위

다음 3건의 법률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와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안 및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소위 직접 회부)

Table with 4 columns: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Rows include laws for support of laborers, laborers, and laborers' families.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0.3.3)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0.3.4.)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 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 동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사할린 동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 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6조 1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사할린동포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판정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법안 내용은 3월 3일 있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발표)

삿포로와 서울에서 사할린으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 2주간 격리

남동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할린주 주민들은 2주간 격리된다. 이에 대해 3월 2일 블라디미르 유슈크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다.

"아시아시피 오늘날 이웃나라 일본 홋카이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삿포로와 항공편 이용 중단 결정에 합의를 보았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지역(중국, 홋카이도,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할린주의 모든 주민들을 2주간 격리할 것을 미리 알린다. 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징후가 없는 경우는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질병의 경미한 징후라도 있으면 격리 병동으로 이동된다."고 블라디미르 유슈크 장관이 밝혔다.

보건부는 입국자 모두 공항에서 필요한 진단을 받고 연구실에서 보낸 필수 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국하는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집에서 2주간 격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병가를 받게 된다.

"만약 입국자들 중 보건 정책을 어겨 공공 장소로 나오거나 주변 사람과 접촉하려는 행위는 행정 위반으로 인정해 러시아 연방법 6.3항에 입각해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공권력으로 범법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유슈크 장관이 강조하고 문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차단하도록 도울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제한 조치의 기한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감염 상황이 억제되어야 하는 만큼 기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Аврора" уточняет, как будет вывози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входящая в группу "Аэрофлот", с 1 марта 2020 года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ила выполнение регулярных рейсов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города Сеул и Пусан. В связи с этим полеты по данным маршрутам будут временно выполняться на чартерной основе.

На текущий момент расписание чартеров полностью совпадает с действовавшим ранее регулярным расписанием с сохранением временных слотов и частности рейсов:

5496/5497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еул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реда, четверг, суббота, воскресенье.

5450/5451 Хабаровск — Сеул — Хабаровск — понедельник, вторник, четверг, пятница, воскресенье.

5750/5751 Хабаровск — Сеул — Хабаровск — среда, суббота.

5436/5437 Владивосток — Сеул — Владивосток — ежедневно (утренний рейс).

5434/5435 Владивосток — Сеул — Владивосток — ежедневно (ночной рейс).

5462/5463 Владивосток — Пусан — Владивосток — понедельник, вторник, среда, четверг, пятница, воскресенье.

5464/5465 Владивосток — Пусан — Владивосток — суббота.

С 1 по 28 марта "Аврора" принимает к перевозке из России (Хабаровск/Владивосток/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граждан Кореи и и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и трансфер), а с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в Россию — только граждан РФ, лиц, имеющих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в России, и граждан стран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ЕАЭС).

Разрешен выезд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трансферным пассажиром, гражданам РФ, при наличии у них билета в третью страну с нахождением в пункте трансфера (Сеул/Пусан) не более суток.

Гражданам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разрешен выезд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Сеул/Пусан) с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и трансферных.

Пассажиры с купленными авиабилетами вправе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возврат их стоимости.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ту организацию, где билет был куплен.

Если билеты куплены на сайте или в приложении "Аэрофлота", заявку на возврат можно сделать на сайте. А если билет оформлен через турист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в интернете (не на сайте aeroflot.ru) или в билетных кассах, заявку на возврат нужно подать по месту приобретения бил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вынужденных возвратов авиабилетов на рейсы в/из Кореи с датами вылета, начиная с 1 марта 2020 года, по всем перечисленным маршрута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щаться в контакт-центр ПАО "Аэрофлот" по бесплатному телефону 8-800-444-55-55. Для звонков с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вы может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есплатными телефонами, указанными на сайте "Аэрофлота".

Пассажирам, гражданам РФ и стран ЕАЭС,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в Россию с оформленными билетами авиакомпании Korean Air,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эту авиакомпанию с просьбой о переоформлении билетов на рейсы "Авроры" из Сеула/Пусана в рамках правил авиационного альянса SkyTeam.

Пассажирам, гражданам РФ и стран ЕАЭС,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в Россию с аннулированными билетами других авиакомпаний на рейсы из Сеула/Пусана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к компании-представителю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в Сеуле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авиабилетов (аэропорт Инчон, Терминал 1, офис 2026, телефон 810 82-32-741-6035; Пусан: телефон 810 82-51-441-9478). Продажа билетов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при наличии свободных мест на этих рейсах.

Пассажирам без билетов, гражданам РФ и стран ЕАЭС, желающим вернуться в Россию,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перевозки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к компании-представителю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в Сеуле (аэропорт Инчон, Терминал 1, офис 2026, телефон 810 82-32-741-6035; Пусан: телефон 810 82-51-441-9478). Продажа билетов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при наличии свободных мест на этих рейсах.

По вопросам расписания и выполнения чартерных рейсов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щаться в контакт-центр "Авроры" по многоканальному телефону 8-800-250-49-88. Звонки из всех городов 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бесплатные.

12 слов, позволяющих понять культуру Кореи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значит слово «доширак»? Правда ли, что в день местного ЕГЭ закрывают аэропорты? Зачем молодые кореянки кривляются и сюсюкают? Почему корейцы ничего не скажут прямо, а плохие новости сообщают вечером? И с чего это кореец называет свою жену «нашей»?

Автор Мария Рязанов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8)

3. Пунвиги 분위기

Атмосфера, обстановка, общее настроение, аура

Понятие,

тесно связанное с *кибун*: в каком-то смысле *пунвиги* — это общее настроение группы,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климат в коллективе, нюансы,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мгновенно считывать при помощи навыков *нунчхи*, чтобы вести



Син Юн Бок. Благословенное питейное собрание. Начало XIX века. 국립중앙박물관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Кореи)

себя правильно и адекватно ситуации. Этим же словом называют контекст, предшествующий, например, заключению сделки или важным переговорам: едва ли они будут успешны без атмосферы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и дружелюбия. Это слово может звучать и в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м смысле. Например, *пунвиги* между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контекст вокруг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Также о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когда говорят об атмосфере и энергетике какого-то места, например, кафе.

4. Чон 정

Душевность, сердечность, душевное тепло, ощущение привязанности и эмоциональной связи



Син Юн Бок. Влюбленные под луной. Около 1805 года. 간송미술관 (Музей искусств Гансонг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амих корейцев, *чон* — один из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корейск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и темперамента, лежащий в основе любых межличностных связей, будь то отноше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упругов, друзей или соседей. Словарное значение («чувство любви, близости, привязанности») не исчерпывает содержания этого многослойного понятия. *Чон* также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 с добротой, заботой, щедростью, жертвенностью, стремлением помогать и умением благодарить и прощать.

Иероглиф *чон*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многих слов, связанных с эмоциональной сферой, например: *эльчон* 열정 (буквально «горячий чон») — «страсть», *нэнджон* 냉정 (буквально «холодный чон») — «хладнокровие», *муджон* 무정 (буквально «отсутствие чон») — «бессердечие, жестокость». Вместе с тем *чон* не обозначает какую-либо конкретную эмоцию, *чон* — это то, что возникает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вторяющихся контактов, длительног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общения и переживания совместного опыта. Это взаимная привязанность, ощущение близости и родства, желание заботиться друг о друге и щедро делиться, безграничное доверие,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ех, кто рядом, ощущение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коллективу, будь то семья или сообщество соседей. Слово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местам или даже вещам, к которым человек привык и прикипел душой в результате накопления *чон*. Важное свойство *чон* — его постоянство: ощущение *чон* формируется и нарастает постепенно, медленно, незаметно, тихо. Возникнув, оно едва ли исчезнет — иногда только разлука с человеком позволяет осознать, как глубока ваша духовная связь. «*Чон* с наложницей — на три года, *чон* с женой — на сто лет», — говорится в старинной поговорке.

Другие важные черты *чон* — его взаимный характер (в отличие от любви, которая может быть неразделенной) и способность преодолевать границы, предписанные общественной иерархией: иными словами, *чон* может возникнуть и между неравными субъектами (старшим и младшим, учителем и учеником), не нарушая при этом существующей иерархии.

Не стоит воспринимать *чон* как возвышенную идеалистическую концепцию, в которой все гармонично, — *чон*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и взаимное раздражение, неизбежное при длитель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Это нашло отражение в устойчивых выражениях: например, фраза «У меня с ним все бывало, и *чон*-любовь, и *чон*-ненависть»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по-настоящему крепкую, нерушимую связь, а поговорка «От ссоры и *чон* крепнет»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порой нужно повздорить, чтобы стать ближе. Негативные чув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акже входят в сферу *чон*, ибо исключены они могут быть лишь при полном равнодушии и безразличии, а это как раз антоним *чон*.

5. Хан 한

Смесь ярости и покорности, мучительное бессилие от невозможности выразить гнев; печаль, вызванная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ю и несвободой; тоска из-за подавленного, неосуществленного желания



Неизвестный художник.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хансори. XIX век.

서울대학교 미술관 (Музей искусств Сеуль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добно русской «тоске» или португальскому «saudade», есть 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уникальное слово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чувства мировой скорби и неизбежной печали — непередаваемое, наполненное смыслами и ассоциациями, очень корейское. Понятие «хан» осмыслится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 как национально-историческом, так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о понимается как коллективн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травма, смешение скорби и не находящей выхода ярости — эти чувства корейцы испытывали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в связи с японским колониальным правлением в 1910–1945 год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хан* может означать душевную боль отде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горько переживающего ограничение личной свободы и не имеющего возможности открыться и поделиться этой болью. Давление извне (гнет исторических или социаль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усиливается давлением изнутри, что делает страдание невыносимым.

Возникновению *хан* в основном способствуют два основных фактора: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й и этический, связанный с конфуцианской моралью.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 концепции *хан* исходит от некой высшей инстанции — агрессивной иностранной державы, власть имущих, строгих родителей, властной свекрови, сурового мужа, начальства, богача. Конфуцианская этика требует почтения к вышестоящему лицу, будь т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чальник или отец. Недостойное поведение того, кто занимает более высокое место в социальной иерархии, и невозможность об этом сказать рождает *хан*. Гне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казывается обращен не вовне, а внутрь, ч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хвабён* 화병 (буквально «болезнь от гнева») — культурно обусловленное депрессивное расстройство, которое развивает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долго подавляем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напряжения и также встречается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за рубежом.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Источник: <https://arzamas.academy/mag/787-korea>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Числ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в РК – 5.766 челове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ночь 5 марта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5.766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за минувшие сутки выявлены 438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320 в городе Тэгу, 87 -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эпидемии умерли 36 человек.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ев в Тэгу составило 4.326, а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 861. 5 марта из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выписаны 47 полностью выздоровевших пациентов, а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выздоровевших составило 88 человек.

Ким Чен Ын принял личное участие в военных учениях

Пхеньян в минувший понедельник совершил запуск двух неопознанных снарядов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нимал личное участие в прошедших учениях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 сообщается в Центральном телеграфном агентстве Кореи (ЦТАК). Подробности не уточняются. Известно лишь, что Ким Чен Ын остался доволен результатами учений и готовностью своевременно выполнить приказ в любой ситуации. П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нимкам,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выпущенные снаряды схожи с теми, которые были выпущены 31 октября и 28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ают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Пхеньян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совершил запуск двух снарядов с интервалом между залпами в 20 секунд. В случае, если Север провёл испытание реа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сверхбольшого калибра, то интервал между залпами сокращён ещё на 10 секунд 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оставляет 20 секунд.

Мун Чжэ Ин провёл совеща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Вс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должны перейти на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режим работы. С таким распоряжением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о вторник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нарастающие темп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и призвал министров к выполнению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на местах.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о неудобствах граждан, связанных с поставкой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ок. В связи с этим, были даны распоряжения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ставке материалов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объём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ок, подготовке плана для закупок масок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обеспечения рационального 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распределения масок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Вместе с этим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тяжёл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в стране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нят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мер для смягчения урона экономике, вызван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Завтра планируется обсудить проект принят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 отправить его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делить на борьбу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орядка 25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разделят на групп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яжести заболев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м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больничных коек для пациентов, заражё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Особенно остро она стоит в городе Тэгу, на долю которого приходится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пациенты с COVID-19 будут разделены на четыре групп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яжести заболевания. Те, у кого нет симптомов заболевания, либо с лёгкими симптомам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лечение в карантин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в не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таких как объект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Пациенты с тяжёлыми симптомами, которы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елятся на три категори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епени тяжести, будут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штабе, у более чем 80% пациентов заболевание протекает в лёгкой форме. До сих пор все, у кого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наличие вируса,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направлялись в стационар. Решение разделить пациентов на групп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яжести заболевания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в городе Тэгу и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с подтверждённым вирусом COVID-19 умерли из-за того, что не были своевременно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ы по причине нехватки больничных коек.

(RKI)

Судьба Человека. Иеронимо Лим Ким (и Джозеф Джун)

Сегодняшний мой рассказ пойдет о забытом герое Кубинской революции, оказавшемся корейцем, предки которого волею судьбы были сначала заброшены в подневольное рабство на полуостров Юкатан в далекую Мексику, откуда позднее уже смогли бежать на остров Кубу...



Иеронимо Лим Ким (1926 – 2006)

Также это история молодых и талантливых ребят, не боящихся смотреть в лицо своей судьбе, брать ее за грудки и снимать кино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чалах (называющихся нынче модным словом «краудфандинг»).

О Джозефе Джуне я услышала впервые пару лет назад от своего друга Джонатана Чена, возглавлявшего на тот момент корейское бюро газеты «Уолл Стрит Джорнал» в Сеуле.

«Ты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а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жозефом..!», – воскликнул он, поблескивая очками и закрывая блокнотик, в котором до этого были тщательно записаны все детали повтора моей лекции об истории узбекских корейцев [http://www.raskb.com/blog/2017/09/29/lecture-re-visiting-1937-deportation-ethnic-koreans-central-asia], проведенной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июне 2017-го года.

«Извини, что так и не смог прийти на твою встречу в Королевском Азиат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уж очень много было работы... Ты ничего не слышала о Джозефе Джуне и его фильме «Иеронимо»? Вы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ы встретиться, так как оба являетесь независимы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и проводите очень похожую работу, создавая визуальные проекты о нелегких судьбах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на Востоке и Западе...»

Так лично для меня была открыта новая страничка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острова Куба и началось заочное знакомство с режиссером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Иеронимо».

Джозеф Джун впервые попал на Кубу бэкпэкером в 2015-м году. Новоиспеченный нью-йоркский юрист (а в душе по-прежнему студент-калифорниец) отправился туда на неделю в отпуск с простой надеждой на жаркие пляжи и крепкие «мохито». То, что произошло с ним на Кубе, превзошло все его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ожидания.

Девушка-таксист, встретившая его в аэропорту, оказалась корейкой. Узнав, что и Джозеф является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ем, Патрисия Лим начала делиться с ним прямо в такси всеми деталями своей захватывающей семейной истории. Именно в этот самый момент Джозеф понял, что его кубинское приключение только лишь начинается.

Иеронимо Лим Ким, отец Патрисии, оказался настоящим героем Кубинской революции, однокурником и соратником Фиделя Кастро и Че Гевары, которых Джозеф всегда тайно идеализировал. Более того, после своего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Им Ын Джо (корейское имя Иеронимо) основал и само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куб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ий) мир должен был знать своих героев – именно к такой мысли пришел Джозеф по итогам своего перв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на Кубу. Так родилась и идея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о куб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Иеронимо».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Джозефом уже в 2017-м году, когд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ъемки и продюсирование фильма шли полным ходом. Свою первоначальную идею –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о забытом герое Кубинской революции, так называемом «корейском Че Геваре» – Джозеф перенес на общественную финансовую платформу Кикстартер и силой этой очень личной, но в то же самое время и важной для всех человеческой истории смог собрать на ней около 2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от сотен частных донор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С этими средствами Джозеф и его команда таких же молодых и идейных ребят с кинообразованием (сам Джозеф тоже изучал кино в свои студенческие годы в Калифорнии) вернулись на Кубу, сня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провели академические интервью в США.

Собранная ими видео- и академ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 только заложила основу всег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Иеронимо», но и помогла провести повторную финансовую кампанию на Кикстартере для последующего монтажа фильма, а также корректировки его цвета и звука.

Ребята надеялись собрать в этот раз около 3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но их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доноры со всего мира пожертвовали на филь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5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США, что помогло провести еще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интервью в Южной Корее, Америке и на Куб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звращение «Иеронимо» к жизни шло полным ходом.

Наше общение с Джозефом все это время длилось по переписке, он был в курсе моих проектов по «внедрению в мир» истории коре сарам, ну а я продолжала искренне восхищаться всеми успехами его кино-команды в монументализации истории куб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ланировалась и совместная лекция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но когда я приезжала в Нью Йорк, Джозеф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летел на Кубу. Встретиться вживую нам удалось уже в 2019-м году на закрытой премьере фильма «Иеронимо» в г. Вашингтоне.

Ну а теперь пора уже более детально рассказать и о самом фильме. Тот вечер, когда я как на крыльях «летела» сквозь осенний ветер и дождь в зд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Америки, забыть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Во-первых, меня там встречали как родную с вопросом «Когда будем делать третий подкаст?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ослушиваний твой подкасты номер один [http://keia.org/podcast/korean-diaspora-central-asia] и номер два [http://keia.org/podcast/across-tumen-river-victoria-kim] у нас до сих пор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Во-вторых, предстояла личная встреча с Джозефом и долгожданный просмотр фильма «Иеронимо».

Прежде всего здесь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е факты – достойные восхищения душевное постоянство и верность Джозефа самой истории и ее главному персонажу – Иеронимо Лиму Киму, его непоколебимую убежденность как автора и режиссера сквозь все эти годы в важности данной истории для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и глоб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у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его преданность самой миссии донести до нас лица и судьбы «забытой» всем миром диаспоры куб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етали ее объединения в неофициально существующую корейскую ассоциацию на острове Кубе более чем трогательны. Уже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Иеронимо Лим Ким, умом понимая всю брэнность той сам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оторой он до этого посвятил всю свою сознательную юношескую и взрослую жизнь, ну а сердцем требуя новой захватывающей идеи, возвращается к своим корейским истокам.

В нем просыпается первенец-мальчик, послушавшийся когда-то воли отца... Первый раз в детстве, когда вопреки всему он самовольно убегает учиться, хотя отец и принимает непростое решение, что его дети будут вместо этого работать и помогать в вырубке кактуса-энекена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жизнь корейских крестьян на Кубе после переезда туда в 1920-х – 1930-х годах была отнюдь не легкой).

Непреодолимая тяга старшего сына к образованию в итоге умилает жестокосердного отца и тот единственному ему из всех детей, позволяет окончить школу.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Иеронимо поступает на тот же самый юрид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что и Фидель Кастро, и вместе с ним участвует в студенческих протестах против диктатуры Батисты, входит в ключевое звено будущих революционеров, что и помогает его будущему карьерному росту в кубин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и итоговой позиции начальника департамен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од патронажем самого Че Гевары.

Во второй раз слушание Иеронимо заключается в где-то невольном, ну а где-то 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м отказе от собственной «корейскости». Умом и сердцем он ведь молодой кубинец, марксист и революционер, равно как и его кубино-корейская соратница-супруга, взволнованно и убежденно рассказывающая в фильме историю всей жизни своего мужа и их прекрасной и идейной любви...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шест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еделе охраны труда

С 6 по 10 апреля 2020 года в г. Соч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ведение шест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едели охраны труда.

Просим в срок до 10 марта 2020 года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участия направить полные данные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письмо об участниках делегации и представить в Минтруд России, а так же дублировать в Ассоциацию «Эталон» на e-mail: not@aetalon.ru. Форма прилагае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информируем, что для указа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есплатно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Недели (подробнее в письме во вложении), а командирова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направляющей стороны.

Вопросы и предлож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условиями участия и организацией работы Недели, просьба направлять в адрес Ассоциации «ЭТАЛОН», котора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анным приказом Минтруда России выполняет организационно-технические работы по проведению мероприятия. Тел./факс: 8 (495) 411-09-98; e-mail: not@actalon.ru. Официальный web-сайт Недели: vssot.aetalon.ru.

До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лучат лучшие инициативы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ртовал новый цикл проекта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ами выдвигают идеи п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ю сво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Лучшие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в течение двух ближайших лет за сче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рехуровневую систему голосования. С 24 февраля по 22 марта жители будут предлагать свои инициативы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Затем три делегата от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выберут идеи для защиты на районном уровне. На собраниях делегатов,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с 16 по 27 марта, определят по два лучших проекта от кажд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определят на открытом голосовании в Интернете. С 1 по 20 мая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поддержать понравившиеся проекты на портале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Общий бюджет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который распределят между собой победители, – почти 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сумма сред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запустивших у себя аналогичные проекты.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лучшими признали 11 инициатив неравнодушных жителей из 10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Большинство отдали голоса за проекты парка в Корсакове и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г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Охотском, зоны отдыха с висячим мостом в Аниве, крытого корта для зимних и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Охе. Углегорцы выступили с инициативой создать Аллею памяти в Шахтерске, александровцы попросили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систему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е Вяихта, а томарицы захотели построить баню в Ильинском.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предложил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с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ой.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 считает необходимой автостанцию с остановочными павильонами.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хочет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площадки и скверов в Смирных, Победино и Рожино. Еще одним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бережной в селе Стародубском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се эти инициативы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в течение 2020-2021 годов.

Союз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поможет обуча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тудент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Роберт Уразов сегодня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вместной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2035 года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касающимс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от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а.

– Основа всех сфер экономики – это кадры.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мы планируем осуществ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олее 10 масштаб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будет создано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в том числ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И мы будем вместе работать над тем, чтобы сахалинск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еспечивала рынок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оюз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задаст самую высокую планку качества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мы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к тому, чтобы Сахалин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продвижения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трансфера лучших российских практик для стран всег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Звучит амбициозно, но мы уверены, что благодаря опыту WorldSkills Russia мы достигнем ожидаемого результата. Сахалин имеет большие шансы стать успешным и по-настоящему уникальным центром подготовк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 добавил Роберт Уразов.

В подготовке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будут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работодатели. Студентов будут готовить под запросы рынка труда и гарантированно трудоустраивать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ведущих сфер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 Большой стимул к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дал финал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Ворлдскиллс,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в 2018 году. Мы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нять опыт у лучши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своего дела. После чемпионата сахал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профобразования получили новейш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ся центр опережающ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Здесь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специалисты могут пройти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повыси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компетенцию. 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Сервис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лощадка оснащена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 стандартам Ворлдскиллс.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ась в международное движение в 2016 год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финале VI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завоевала 6 наград – 2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и и 4 медальона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 рейтинге регионов островная сборная поднялась с 58 места в 2018 году на 32-ое.

На встреч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масштаб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междуна-

родного уровня по повыше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Около 60 активистов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слете на Сахали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27 по 29 марта прошел региональный слет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дней участники изучал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работы с молодежью и создавали проекты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На слете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движений «Юнармия», «Вымпел», ДОСААФ России, а также учителя средн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Сахалин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Отдельный блок лекций посвятили нынешнему Году памяти и слав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есть этого запланирован ряд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том числе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слет. Масштабное событие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и соберет около 1000 участников из все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 Сегодня важно говорить о памятных датах, особенно с подрастающим поколением. Отрадно, что нас поддерживают 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был рассмотрен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том, чтобы сделать 3 сентября – Ден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днем воинской славы,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р Умн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 слете также затронула основы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 Так,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выделено около 8 миллионов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оекто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Еще две недели мы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документы. А на слете нам удалось рассказать, как оформить свои проекты правильно,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 Неустроев.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инициативы экспертам. Специалисты помогли исправить недочеты, а также подсказали, как можно дополнить проекты. В числе приглашенных экспертов бы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ДОСААФ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 Боржко и член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Юнармия» Евгений Ненашев.

Участниц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лета Арина Галеева работает в школе в Ногликах и вместе с коллегой занимается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воспитанием молодежи.

– Мне важно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домой передать ей опыт, потому что на слете я получила очень много знаний. Раньше я уже писала проекты, но твор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Здесь другая тематика. Мы говорили и о волонтерах, о «Юнармии», о патриотизме. Надеюсь нам удастся устранить все недочеты 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роект, – поделилась Арина Галеева.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лета вр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Подать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субсидии по своим проектам они смогут до 10 марта.

Документы принимают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дом 39, кабинет 211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лефон: 8 (4242) 671018 (Александр Цой).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aleksandr.tsoy@sakhalin.gov.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удьба Человека. Иеронимо Лим Ким (и Джозеф Джун)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Отец Иеронимо Им Чен Тэк, напротив,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забытых» героев-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Именно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в 1930-е – 1940-е годы собираются и отправляются средства мексиканских и куб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Шанхае на борьбу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И неизменное желание своего отца – чтобы сын в итоге вернул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и выучил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Им Ын Джо (Иеронимо) выполняет практически уже в пожилом возрасте.

Еще одним откровением для него становится посещение сначал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секретной миссией от Фиделя Кастро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Че Гевара наносит туда первый визит Ким Ир Сэну в 1960-е годы, ну а позднее и Кореи Южной, когда Иеронимо впервые участвует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рейском саммите, где собир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уже в начале 1990-х.

Возвращение Иеронимо к своей собственн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и культуре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легким – до самого конца он полон сомн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и в

существовании Бога, о чем в фильме рассказывают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иссионеры, подтверждая, что в итоге Иеронимо в конце своей жизни становится-таки христианином (ну а его социалистка-супруга продолжает это заявление горячо и возмущенно отрицать).

Лишь в одном нет сомнений у Иеронимо, когда речь заходит 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на острове Куба – ее официаль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в Ассоциацию куб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чего он сам лично, уже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ездит буквально по всему острову на своем старом полуразвалившемся автомобильчике-драндулете и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собирает подписи всех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Кубе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в итоге оказывается около тысячи).

Ну а ког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иссионеры спрашивают у Иеронимо, не нужны ли ему для создания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подобной Ассоциации финансовые средства на какие-либо будущие расходы, тот, подумав, скромно просит денег всего лишь на все на ...бензи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Иеронимо Лима Кима всем корейцам, добравшимся из Мексики до острова Куба, ныне установлен мемориальный памятник в порту Ма-



Во время закрытой премьеры «Иеронимо» осенью 2019-го года в г. Вашингтоне, США – независим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Восток-Запад» объединяются! (на снимке: Джозеф Джун и Виктория Ким).

www.jeronimothemovie.com/] и мы до сих пор поддерживаем связь по переписке. Ну а на официаль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Ассоциации куб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Фиделя Кастро разрешения, по иронии судьбы, увы, так и не дало, но она продолжа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фактически – умом, сердцем и душой.

Виктория Ким
(Сайт Kore Saram)

왜 외국어를 배우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이고 태평양국립 대학교의 3학년생입니다. 전공은 《해외 지역연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고향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아버지는 루마니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왜 제가 외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TV드라마 《대장금》을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촬영되어 저는 처음으로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궁궐과 옷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의 문화와는 많이 달랐죠. 나중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학교에서 영어, 프랑스어, 우크라이나어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어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사람들을 알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와 같은 다른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이 졸업한 대학에 입학하고, 《해외 지역연구》를 전공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어와 중국어와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제 긴 역사를 가진 가장 위대한 나라들 중 하나의 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언어를 배웠지만, 학창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원작으로 볼 수 있어서 기쁘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말로 깨닫다]

한글 뒤풀이 이야기

국문뒤풀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뒤풀이'라고 하면 어떤 모임이 끝나고 모여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즐거운 모임이 생각나겠네요. 국문뒤풀이라고 하니 국문과의 뒤풀이거나 국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뒤풀이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그런데 뒤풀이에는 그것 말고도 다른 뜻이 있습니다. 뒤풀이는 '어떤 말이나 글 아래에, 그 뜻의 풀이 비슷하게 노랫조로 지어 붙인 말.(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문뒤풀이가 있는데 이는 국문의 글자를 풀어서 노랫조로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한글을 배울 때 '가갸거겨'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는 아니었지만 노래처럼 리듬을 타고 외웠습니다. 4.4조의 리듬이죠. 예전에 송창식 선생이 불렀던 '가나나라'라는 노래도 생각이 나네요. '가나나라마사자차카타파하'로 시작하는 노래여서 한글자모의 발음 연습에 도움이 될 만한 노래였습니다. 물론 가사는 한글을 배우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가사를 보면 '일엽편주(一葉扁舟)' 등의 어려운 단어도 나옵니다. 아무튼 '가나나라'를 송창식 선생의 특이한 동작과 함께 무척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문뒤풀이는 민요입니다. 언문뒤풀이라고 하거나 한글뒤풀이라고도 합니다. 한글 자모를 익히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민요를 하는 사람의 발음을 연습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요공부는 목청을 띄워야 하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발음과 민요의 발음은 좀 다릅니다. 목청을 열고 단전(丹田)에서 발음이 올라오게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문뒤풀이는 다른 민요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민요를 연습하는 곡으로 효과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민요를 배울 때는 국문뒤풀이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문, 국어'라는 말은 일체강점기를 지나면서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한글'이라는 표현을 새로 만들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글을 국문이라고 하면 안 되었던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글마저 못 쓰게 된 설움이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국문뒤풀이는 민요로 남아 부르게 됩니다. 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문뒤풀이를 통해 재미있게 한글을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이들보다는 글을 모르는 어른에게 더 맞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사가 주로 사랑과 이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가사를 좀 볼까요? 노래를 모른다면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꼭 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가갸거겨'부터 '파워파워'까지 한글자모를 이용해서 각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학 장르로 보자면 조선시대의 4.4.조의 가사(歌辭)같은 느낌입니다. '가갸거겨/가이없는/이 내 몸이/그지없이/되었구나.' '고교구규/고생하던/우리낭군/구관하기가/짜이 없구나.'와 같이 4음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노래의 모든 줄은 기본적으로 '가갸거겨'처럼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 '가나나라마사자차카타파하'의 각 글자로 시작하는 어휘 표현을 담았습니다.

국문뒤풀이는 여러 가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널리 민중 속에서 불리지는 않은 듯합니다.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었음에도 가사간의 논리가 부족한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에 짜임새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민요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논리적이란 말은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요는 민중 속에서 살아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이 좋아할 수 있게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할 겁니다. 굳이 옛 가사만을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옛 가사는 그대로 두더라도 새로운 국문뒤풀이가 계속 나온다면 어린아이도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요도 더 널리 생명력을 얻을 겁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한글뒤풀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글뒤풀이의 변신을 꿈꾸어 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러시아 푸시킨 미술관에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배치

주러시아대사관, 푸시킨 미술관과 11월 '한국의 불상' 전시회 개최도 합의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국립 푸시킨미술관이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를 제작 배치한다"고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나 로샤 푸시킨 미술관장은 최근 언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미술관에 한국어 오디오가이드가 배치되게 돼 관람객들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게 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인 방문객들이 우리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석배 대사도 "(푸시킨 미술관에) 한국어 오디오가이드가 배치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박물관의 예술품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서비스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세계 미술과 러시아 미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전했다.

현재 푸시킨 미술관에는 유럽의 주요 언어들과 중국어로 된 오디오가이드가 배치돼 있다.

또한 인테르팍스 통신은 푸시킨 미술관과 주러시아한국대사관은 앞서 오는 11월 '한국의 불상' 전시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로샤 미술관장은 협력각서 체결

식에서 "올해 양측의 협력 결과로 러시아에 매우 중요한 전시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 전시회 개최를 위해 우리는 한국국립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과 협력했고 그 결과 고대 한국조각 및 불상들 전시회를 열게 됐다"라고 소개했다.

또 로샤 관장은 또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 및 문화 관련 예술 작품들이 러시아에서 전시된 적은 없다"며 "우리는 우리 미술관의 가장 좋은 전시홀 중 하나에서 러시아에서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 독창적인 기념물들을 소개하고 이 시기의 예술에 대해 설명하게 될 순간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배 대사도 이번 협력 각서 체결이 한국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보도는 "이 협력각서는 문화, 예술, 홍보 및 교육 분야에서 장기적인 효율적, 체계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국립박물관은 소장품 중 가장 가치 있는 불상들을 이번 기획전 전시물로 선정했으며 전시품 중에는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된 작품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불상' 전시회는 11월에 개막해 2021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Главный приз «Золотого медведя» получила лента «Зла не существует» ир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Мохаммада Расулофа в качестве лучшего фильма года. Между те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ежиссёр Хон Сан Су получил «Серебряного медведя» за режиссуру, представив драму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убежала».

Хон Сан Су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четвёртый раз. Это его четвёртая награда, полученная на одном из трёх крупнейших кинофестивал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Каннский, Берлинский и Венециа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и.

Фильмы режиссера Хон Сан Су не раз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Край света».

사할린 지역 조류 도감 3부 출간

2월 28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주의 새들> 제3부 조류 분류 도감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첫 2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출판되었다. 이 출판물에는 사할린 지역 100종의 조류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이 책이 가

진 중요한 독특함은 극동 지역의 새들을 관찰한 조류 관찰자들이 찍은 무수한 사진들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사할린의 모든 조류 관찰자들의 상호교류와 연합으로 성취된 조류 도감 출간은 주요 목적 중 하나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출간된 2부 조류 분류 도감을 보고자 하거나 구입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책들이 증정용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이 도감은 러시아어와 영어 2개국어로 출간되었으며 새들의 명칭은 러시아어, 영어, 라틴어 3개 국어로 기록되어 있어 영어를 잘 못해도 사할린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에 흥미로운 새들에 대한 번역된 정확한 명칭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조류 분류 도감의 저자는 동물 사진작가 류드밀라 우스찌노바다.

3권의 조류 분류 도감에 실린 희귀 수렵금지 종의 조류들은 73종과 아종(유사한 종)에 이른다.

Вышла третья часть атласа-определителя пти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8 февраля в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III

части атласа-определителя «Птиц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е две части вышли 2013 и 2015 годах.

В данном издании собрана информация о 100 видах птиц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Ее главным отличием явля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е число фотографий, выполненных любителями наблюдений за птиц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стигнута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целей выпуска атласа-определителя — это достижение взаимосвязи и объединения всех островных любителей птиц.

Для тех, кому не повезло приобрести или хотя бы увидеть предыдущие две части, напомним, что все книг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были задуманы как подарочные. Они изданы на двух языках —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Названия птиц даются на трех языках — рус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и латинском. Любой человек, посетивший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е владеющий английским, сможет у себя в своей стране найти точный перевод назван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вшей его птицы.

Автор книги — фотограф-анималист Людмила Устинова.

Число редких краснокнижных птиц,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в трех частях атласа-определителя, достигло 73 видов и подвидов.

(러시아 및 외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приглашают на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8 Мар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7 мар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программе:

1. Торж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2.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3. Фуршет
- Начало концерта в 15:0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